영어어문교육 *제29권* 4호 2023 겨울
https://doi.org/10.35828/etak.2023.29.4.125

L1 어린이의 탐험 욕구와 L2 성인의 알고자 하는 욕구에 관한 언어 발달 비교 연구: 애착과 중재의 개념을 중심으로

임미진
(국민대학교)

Im, Mijin. (2023). A comparison of L1 children's curiosity and L2 adult learners' willingness in language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 concepts of attachment and media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9*****(4), 125-14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bserve how L2 adult learners get close to L1 children in their language development in terms of attachment, curiosity and mediation. Five high-intermediate English major college students were engaged and instructed to understand the concepts of attachment and mediation. After this, they were provided with seven types of English material, consisting of four different language-focused materials (dialogue, situation-based explanation, deep cultural words, and conventional words) and three different content-based materials (advice, humor, and impression). The participants were supposed to collect preferred language items in each type and write reasons spicking the items. They also reported their preference in order among the seven types of material. They were evaluated on whether their preferred language items would function as mediation or as a goal to learn Englis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umor type of language was the best to function as mediation, followed by the impression type. The dialogue type was the worst. However, the participants' reports were the opposite. Most of them chose situation-based explanations as the best. The participants tended to show that content-based material was not appropriate for learning English. Mediation was not considered a key factor in learning a language.

[curiosity/attachment theory/mediation/language development/L1 children, 욕구/애착 이론/중재/언어 발달/L1 어린이]

I. 서론

L1 어린이와 L2 성인을 비교하는 것은 2개의 변수가 달라서 문제가 있다. 나이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Brown, 2014). 그러나 L1 어린이는 언제나 언어 학습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주목하게 되지만, L1 어린이가 어떻게 언어를 학습해 나가는지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L1 어린이는 언어를 명시적으로 학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L1 어린이는 일찍이부터 명시적인 지도를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Tomasello 외, 1993). 그들은 어린이가 태어나면서 부모, 유모, 기타 성인들로부터 생존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받는데 이것이 바로 명시적인 지도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뜨거운 물건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지도일 것이다.

L1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 비록 말은 못 하고 언어를 사용할 만큼의 인지력도 갖춰지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대화 의지는 갖고 있다. 이 단계를 언어 이전 단계(prelinguistic stage)라고 부르는데 태어나서 한 달부터 2살까지 기간을 가리킨다(Määttä 외, 2016). 이 시기에 대화 기술이 발전을 하는데 비언어적 기술(non-verbal skills)이 주 대화 방식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눈 맞추기(eye contact), 몸짓(gestures), 육성(vocalization), 얼굴 표정(facial expressions) 등이 있다(Bayat 외, 2021). 이 외에도 의사소통 기능(communicative functions)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행동 조절(behavior regulation), 공동 관심(joint attention),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이 있다(Shumway & Wetherby, 2009). 그리고 어떤 언어 이전 기술은 인지적 근거(cognitive base)를 가지고 있는데 모방, 대상 영속성(object permanence) (Baillargeon 외, 1985), 유희(playing) (Quinn 외, 2018) 등이 있다. 비 언어적 기술이 이 정도의 장치를 준비하여 대화에 참여하며 언어를 배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많은 장치들은 어린이가 지닌 특징, 즉 애착(attachment)과 탐험(exploration)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애착은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려는 행위이다(Bowlby, 1969), 이 행위는 신체적, 감정적 표현으로, 예를 들면 얼굴 표정을 짓고 눈을 맞추는 행위는 상대에 대한 관심과 참여(engagement)의 의사를 보이는 것이다. 어린이가 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보호자를 벗어나서 탐험을 시작한다(Ainsworth, 1967). 어린이의 탐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유희이다(O'Connor & Butler, 2018). 진화적인 관점에서 유희는 초기 기술 발달에 필요한 것이고 신체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그리고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과 언어 발달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렇다면 L1 어린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L1 유아의[1] 애착과 탐험을 L2 성인들에게 적용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애착은 관계를 밀접하게 만드는 것이니 서

[1] 본 연구에서 "유아"와 "어린이"를 상호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유아와 어린이를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태어나서 만 2살까지를 가리킨다.

로 대화를 하게 만든다. 신생아는 쉬지 않고 계속 운다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본능 때문으로 신생아 혼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울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둘째는 충족되지 않은 자연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먹고 싸고 마시고 자는 것 등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을 한다. 세 번째는 불편함과 통증이다. 이 역시 주위의 도움을 받으려고 우는 것이다. 신생아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울음이 대화의 도구로 되어 있는 것이다(Zhabinskaya, n. d.). 이러한 상호작용이 언어의 중재(mediation)를 필요로 하고 결국에 가서는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일 것이다. 성인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운다. 대화와 언어 사이에 괴리감이 생긴다. 예를 들어 "나 호구가 아니거든" 이라는 말을 영어로 "He's a pushover"[2]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배웠다고 해 보자. 이 표현이 나오는 대화를 언제 하게 될지, 또는 이 표현을 사용할 기회가 언제 있을지 전혀 모른다. 기다리다 이 표현을 잊게 되면 대화와 언어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다. 유아는 대화를 하면서 언어를 배운다. 유아는 어떤 부분에서 언어가 필요한지 대화를 하면서 아는 것이다. 성인은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탐험은 언어를 더욱 발달하게 만든다. 신체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성의 발달과 어울려 언어는 점점 더 세련미를 갖추게 된다. 성인에게서 탐험이란 관심, 즉 알고자 하는 욕구와 유사할 것이다. 유희가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에 기본이 되는 것처럼(Lester & Russell, 2010) 성인의 욕구도 그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행복과 만족에 기초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관심을 보일 다양한 장르들을 제시하고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학습에 매달리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다양한 장르는 유튜브와 영화를 통해 피험자들에게 익숙한 언어를 배우는 상황, 살아나가는데 지혜를 가져다줄 대화, 즐길 수 있는 유머, 그리고 감동을 선사할 영화 등이다. 탐험을 나선다는 말은 세상사를 배우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고 탐험의 결과로서 배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유아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이 기대감을 통해서 L2 성인도 L1 어린이와 같은 학습 과정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Ⅱ. 문헌 연구

1. L1 유아의 욕구

[2] 유튜브(YouTube) 영어표현 채널의 쇼츠(Shorts) 영상 예시 문장이다(참고 https://youtube.com/shorts/WBrwAhjYPCw?si=MFV-4SQjiTuZmigo).

어린이의 언어 습득과 관련해 사용 중심 접근법은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specific communicative event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Tomasello, 2000). 따라서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심리언어학적인 단위(psycholinguistic unit)가 된다. 심리언어학적 단위는 언어 사용자가 언어를 이해하고 발화하는데 사용하는 심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이 된다. 그리고 심리적 표상은 외부의 실재를 마음에 나타나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Mental representation," 2023).

Tomasello(2000)는 언어 이전기(prelinguistic stage)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사소통 의도를 이해하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 대해 기술하면서, 비록 언어 이전기의 유아가 언어를 몰라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욕망(general desire)은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선천적으로 음식이나 물, 잠, 편안함 등과 같은 것을 원하는 욕구와 주변의 상황을 탐험하고 배우려는 욕망을 이미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 상대의 의사소통 의도는 간파할 수 없지만 최소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 알릴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우는 것으로 이런 표현 중의 하나이다.

유아가 선천적인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욕구나 욕망이 언어를 배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유아는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손을 빨거나 먹이 찾기 반사(rooting reflex)를 한다. 유아의 입 주위를 가볍게 건드리면 그쪽으로 입을 가져다 댈 것이다. 이것이 일종의 먹이 찾기 반사이다.

유아의 이런 행위는 언어 습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행위는 일종의 문맥(context)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 보호자(primary caregiver)는 그 문맥을 이해하면서 유아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유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문맥을 제공하면서 알리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 문맥을 몰라서 아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다. 아기의 엄마는 쉽게 아기의 의도를 파악한다. 바로 아기가 문맥을 제공하여 엄마는 그 문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보호자와 유아는 대화를 하게 된다. 보호자는 유아가 원하는 것을 말로 하면 그 말은 유아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Schütz(2019)는 이해 가능한 입력이 언어 습득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언급하면서, 언어 습득은 문법의 사용이 아니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유아가 문맥을 제공했다는 것은 보호자와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의도를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언어 학습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2. 애착 이론(Attachment Theory)

Tomasello(2000)는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선천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Bowlby(1969)는 이 욕망을 애착으로 보았고 애착 이론을 소개하였

다. 그에 따르면 유아는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인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보호자와 아주 가까운 감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고 한다. 이 동기가 유아들이 생존을 위해 보호자에게 의지하게 만든다. 유아들이 초기에 애착 관계를 갖는 것은 그들의 미래 관계, 정신적 건강, 전반적인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보호자들과 안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어린이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더불어 삶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기술과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게 된다.

Bowlby(1969/1982)는 애착 체계는 내재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반응이며 동시에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 체계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는 낯선 사람이나 환경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보호자 곁으로 가서 보호를 받는 것이 일종의 행동 체계가 된다. 이 외에도 유아는 감정적인 편안함과 규제(regulation)를 위해 보호자에게 의지를 한다. 예를 들어 유아는 고통을 받을 때 반사적으로 보호자에게 붙어서 그들을 달래주고 진정시켜 주기를 바란다. 무의식적으로 기대는 것이다. 언어를 배운다는 관점에서는 유아는 그들이 속한 환경을 탐험하고 그들이 속한 세상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이 때에 애착은 유아가 탐험하는 것에 안전한 바탕(secure base)을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유아가 보호자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가 다른 유아가 다른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면 그 행위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보호자에게서 벗어나서 그 장남감 쪽으로 기어간다. 그렇지만 기어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보호자를 바라본다. 보호자가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마치 개를 산책시킬 때 뛰어가던 개가 뒤를 돌아보며 주인이 오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때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가 무엇인가를 탐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그의 곁에 가까이 붙어서 웃어준다면 이것이 탐험을 지속하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안전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안전한 바탕은 Bowlby 전에 Ainsworth(1963)가 애착을 설명하면서 먼저 사용한 용어이다. 이 아이디어가 애착 이론의 기본 원칙이 된 것이다.

탐험을 하고 세상에 대해 학습을 하려는 행동이 일종의 문맥을 제공한다. 문맥이란 보호자가 유아의 의도를 이해하게끔 해 주는 분위기나 환경을 말한다. 이 순간 보호자가 단어를 써가며 그에게 언어를 제공한다면 이것은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이 될 수 있다.

성인도 애착 이론의 적용이 가능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서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Burkhart & Borelli, 2020). Hazan과 Shaver(1987)는 유아의 애착 관계는 후에 성인의 낭만적 관계를 예측하게 해 준다고 했다. Fraley(2018)는 성인의 애착 이론에서 3가지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였다. 첫째, 유아와 보호자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애착은 성인에서도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에게서 보이는 탐험도 성인에게서 볼 수 있으며 셋째, 성인이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안전감은 유아의 애착 관계의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애착 관계와 L2 학습과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들은 찾기가 어렵다. 영

어 교수법에 큰 영향을 미친 Rogers(1951, 1977, 1983)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교실에서 지도(teaching)보다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Rogers와 Vygotsky는 학습에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적인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데(Brown, 2014)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 여기고 있으므로 애착 관계와 유사하다고 사료된다.

3. 중재

중재는 어린이 발달에 대한 Vygotsky(1978)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이다(Karpov, 2003). 정의를 살펴 보면 중재란 사회와 개인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된다(Daniels, 2015). López Ferrero 외(2019)는 중재는 사람과 그의 환경 사이의 관계에 제3번째 요소의 개입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사회와 개인이 첫 번째 중심이 되는 것이고 사회와 개인을 연결해 주는 것이 중재, 즉 두 번째 중심이 되는 것이다. 언어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자면 언어가 중재가 되는 것이므로 첫 번째 관심이 아니고 두 번째 관심이 되는 것이다.

L1 어린이가 언어를 배우는데 L2 성인 학습자들과 현저하게 다른 것은 중재이다. 어린이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첫 번째 목표로 되어있지 않다. 주변을 탐험하는 의도가 첫 번째 목표가 되고, 언어는 두 번째가 된다. 즉 탐험하려는 주변이 첫 번째 목표이므로 주변에 대한 의식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런데 L2를 배우는 성인들은 언어를 배우려는 의도를 첫 번째의 목표로 설정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읽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내용은 소홀히 다루는 것이다. 내용을 소홀히 다루면 내용과 언어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장차 언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

Wertsch(2007)는 사람은 사회적 그리고 실제적 세계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라는 중재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고 했다. 교실에서 L2 학습자들은 언어에만 신경을 쓰다가 언어가 연결하고 있는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를 무시하게 되고 언어가 갖는 본래의 기능, 중재의 기능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도구의 사용이 곧 중재가 되는 것이다. Wertsch(2007)는 중재를 전문적인 중재(technical mediation)와 심리적인 중재(psychological mediation) 둘로 나누었다. 벽에 못을 박는다면 망치가 전문적인 중재의 역할을 하고, 남들과 대화를 할 때 언어를 사용하면 언어가 심리적인 중재가 된다고 하였다.

Nieto(2007)는 중재를 3가지 타입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자신과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중재이다. 예를 들면 미래를 결정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때 내적으로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중재의 도구이다.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중재자 또는 언어가 중재가 된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생활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서 상

담사를 찾아간다면 상담사가 중재자가 되고 부부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둘이서 대화를 한다면 사용한 언어가 중재가 된다. 셋째는 전문적인 기술을 통한 중재이다.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는 대화를 할 도구들이 다양해졌다. 디지털 통신과 플랫폼이 대표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사실 Vyogtsky의 본래의 중재의 개념은 세월이 흐르면서 진화가 되었다고 하겠다. 철학, 인지 심리학, 신경 생리학 등의 학문 분야가 중재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처음에 심리적인 도구로 간주되었던 전통적인 텍스트북이나 워크북의 아이디어에서 벗어나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도 중재에 속하게 되었다. 또한 교실에서 언어 학습도 언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도 다루게 되었다(Daniels, 2015).

Vygotsky의 출현은 상호작용이 언어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 습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Kobayashi, 2022). 이런 관점에서는 중재는 중재자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중재는 사람과 환경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과 환경과 언어 중에서 사람과 환경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이 언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는 L1 유아들이 보호자들과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을 L2 성인 학습자에게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미 문헌 연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아들은 보호자들에게 애착을 하는 본능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다. 즉 보호자들에게 보호를 받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욕망은 유아와 보호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 발달도 일어나게 만든다. 이 과정을 L2 성인 학습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조사하려고 한다. 두 번째 목적은 L1 유아들이 보호자들로부터 명시적인 지도를 받고 있고 L2 성인 학습자는 교실에서 명시적인 지도를 받고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L1 어린이들은 모국어 습득에서 항상 성공하지만 L2 성인들은 외국어 학습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 어린이와 성인 사이에 명시적인 학습이 다른 성격을 띠는지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두 번째 목적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L1 어린이의 명시적인 언어 학습은 중재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그리고 L2 성인들의 명시적인 언어 학습은 어느 정도 중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들을 사례 연구를 통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구심을 연구 질문으로 채택하였다. 연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L1 어린이와 L2 성인을 비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겠는가?

Brown(2014)은 어린이와 성인을 신경 생물학적, 인지적, 정의적, 그리고 인어학적인 비교를 통하여 조심스럽게 두 개체 사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1 어린이를 관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둘째, 애착은 어린이가 가진 사회 생활을 위한 놀라운 능력이다. 과연 성인에게서 이와 같은 애착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한가? 보호자는 어린이의 애착에 응답을 잘 하는데 교수자도 이와 같은 적절한 반응이 가능한가?

셋째, L1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탐험과 그로 인한 학습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언어 발달도 일어난다. 그렇다면 L2 성인도 탐험과 학습을 L1 어린이처럼 간접적으로 영어 학습에 연결해야 하는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 주어야 하는가?

2. 피험자

피험자들은 영어 전공 대학생 5명이다. 그들은 중상위권의 학생들이며 영어 학습에 대한 욕심은 있으나 자발적으로 영어 학습을 하고 있지 않다. 학습환경을 제공해 주면 열심히 학습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나 아직은 미래를 확정하지 않아서 영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대신 토익 점수는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으며[3] 본 실험의 영어 학습법에 대해 우호적인 편이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있고 자연스런 영어를 배우고 싶어한다.

5명 중에서 해외에서 영어를 사용해 본 경험은 4명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화를 활용하여 영어를 학습한 경험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영화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영화를 사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3. 연구 도구

본 실험은 피험자들이 그들의 관심을 세상사에 두는지 아니면 영어를 배우는데 두는 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피험자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들의 관심사와 영어 학습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를 보려고 한다. 사용한 자료는 언어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4가지 유형과, 내용과 관련된 3가지 유형 총 7가지이다[4].

---

[3] 피험자들의 토익 점수는 830점에서 930점대이다. 피험자들이 구체적인 점수를 밝히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다.

[4] 이 자료들 중 5가지는 유튜브 쇼츠 영상들과 TV 토크 쇼(talk show)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오토라는 남자*로 사용했다.

첫 번째 언어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4가지 유형 중 하나는 상황을 정하고 대화를 통하여 표현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황은 약국이고 약사와 환자 사이에 약에 관한 대화를 한다. 약국에서의 대화이므로 “처방”, “매약”, “두통”, “진통제” 등 비교적 전문적인 단어를 배울 수가 있다. 두 번째는 현장을 제시하고 어휘 및 문법 학습할 수 있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는데 공항에서 필요한 용어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는 관습적인 표현들을 설명을 한다. 예를 들면 영어로 떠올리기 쉽지 않은 “뛰어난 말 솜씨” 같은 종류의 표현들을 제시하여서 학습자들의 관심을 끌도록 했다. 네 번째는 원어민이 아니면 사용하기 힘든 표현 들이다. 4가지 유형 모두 영어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피험자들의 관심을 받기가 제일 쉬울 것이다.

두 번째 내용과 관련된 유형은 첫째 메시지이다. 담긴 메시지가 교훈적인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데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그래서 “knowing-doing trap”이라는 용어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 피험자들이 영어 학습을 하면서 교훈적인 메시지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알아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유머이다. 토크 쇼의 사회자가 BTS가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해 재미있는 농담을 한다. 군대도 “army”인데 BTS의 팬들도 “Army”로 부른다. 이 점을 이용해서 피험자들을 즐겁게 해 준다. 세 번째는 감동으로,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담긴 영화 *오토라는 남자*(*A Man Called Otto*, Forster, 2022)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7개의 자료를 피험자들에게 제공을 했을 때 이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할 것이다. 영어 표현을 배우는 것이 목적인 자료들을 피험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기억할 것인지 메시지나 농담이나 감동을 주는 자료들은 영어 학습과 어떻게 연결을 할지 살피는 것이다.

4. 절차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을 진행했고 총 10회 실시 후 테스트를 했다. 교수자의 판단으로 피험자들의 수업 소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 중간에 퀴즈를 실시했다. 매 회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험자들에게 L1 어린이 또는 유아가 가지고 있는 본능에 대한 설명을 한다. 첫째는 애착이다. 보호자에게 애착을 가지면서 그들과 유대관계를 먼저 형성을 한다. 유대관계를 통해서 L1 어린이는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 어린이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 언어를 사용하는 단계가 아니면 몸짓, 표정, 소리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을 한다. 이것이 보호자에게 문맥으로 작용을 하여 언어로 듣지 못해도 어린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본능은 탐험을 하며 학습을 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본능적으로 호기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탐험을 하게 되어 있다. 어린이는 탐험에 나서면서 보호자가 옆에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 보호자는 가까이에서 어

린이를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어린이가 탐험하고 있는 대상을 가능하면 언어로 가르쳐 준다. 만약 장난감을 탐험하는 것이라면 그 물건이 “장난감”이라고 단어로 가르쳐 준다. 이러한 과정이 어린이가 언어를 성공적으로 배우게 되는 요인일 지도 모른다. 피험자들은 이 설명을 듣고 L1 어린이들의 2개의 본능, 애착과 탐험을 피험자들의 언어 학습 기준으로 삼도록 자각력을 심어준다.

둘째, 교수자는 피험자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 L1 어린이는 애착을 갖고 보호자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지만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라 교수자가 반대로 피험자들에게 애착을 보여준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교수자와 피험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7개의 유형들을 하나씩 읽고 해석하는 활동이다.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한 유형 4가지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형 3가지(메시지, 유머 감동)가 있다.

넷째, 각 유형 마다 무엇을 배웠는지 왜 그것을 배웠다고 판단하는지 묻는다. 탐험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보고서로 받아서 교수자가 분석을 한다.

다섯째, 7개의 유형에 대해 피험자들이 선호하는 순서를 정하게 한다. 어떤 유형을 학습에 제일 선호하며 어떤 유형을 꺼려지는 지를 묻고, 보고서를 받아서 분석을 한다.

5. 자료 분석[5]

분석 기준은 어떤 자료들을 이용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그 자료들을 이용하였을 때 영어 학습에 유익한 것인지이다. 예를 들어 영어 표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들을 암기를 하면 장차 영어를 사용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습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지만 어느 정도가 기억에 남을지는 확인할 수 없다.

L1 어린이들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세상을 탐험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배우며 언어는 중재를 할 뿐이다(Lantolf, 2011; Wertsch, 2007).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 기준은 3가지로 정했다. 첫째는 언어 학습이 얼마나 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가? 이는 Lantolf(2011)의 사회 문화적 접근법(socio-cultural approach)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호작용 가운데 언어를 학습하고 있는지 볼 것이다. 둘째는 언어 학습이 얼마나 기능적인가? 다시 말하면 언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목적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L1 유아의 탐험 습관에서 관찰한 것이다(Tomasello, 2000). 셋째는 언어 학습이 얼마나 암시적인가? 언어 지식은 상호작용의 결과이지 시작이 아니라는 관점이 기준이 될 것이다. 이는 Norton

[5] 자료 분석은 피험자들의 보고서와 필기 시험을 본 것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과 Mckinney(2011)의 정체성 접근(identity approach)을 따른 것이다. 물론 언어 학습의 명시적인 지도를 소홀히 보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인 지도가 발생하는 시점이 상호작용을 한 후인지 아니면 상호작용 전에 일어나는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상호작용 후에 명시적인 지도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암시적인 접근 하에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Ⅳ. 결과 및 분석

피험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영어 학습과 관련된 유형 4개와 내용과 관련된 유형 3개 나누어 총 7개 유형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먼저 영어 학습과 관련된 4가지 유형으로 피험자들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과 부합되는 내용들이므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1. 언어 중심 교재에 관한 피험자들의 반응

언어 중심 4가지의 유형 중 첫 번째는 상황 대화이다. 약국 상황, 공항에서의 입국과 관련된 상황, 그리고 강의실에서 문법 설명하는 상황이 포함된다. 약국 상황에서는 몸의 증상을 말하고 증상에 맞는 약을 약사가 주는 대화이다. 사용된 어휘들을 모른다면 약국에서 약을 사기가 몹시 불편할 것이다. 공항 입국에서도 입국하는데 필요한 어휘들을 배울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문법은 취미에 관한 대화를 중심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 어느 상황에서 문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문법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현장을 중심으로 어휘와 문법을 제시이다. 첫 번째 유형과 유사하지만 두 번째 유형에서는 현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예를 들면 “barbeque”의 명사와 동사를 소개하는데 직접 요리를 하면서 제시를 하여 피험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영어로 생각하기 힘든 관습적인 표현들을 소개하고 관련된 예문들을 제공하여 피험자들의 관심을 끄는 유형이다. 예를 들면 “뛰어난 말솜씨” 또는 “신의 한 수”와 같은 표현을 영어로 소개한다.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유형도 세 번째 유형과 아이디어 면에서는 비슷하다. 원어민이 아니면 쉽게 쓰기 힘든 표현을 소개하는 것이다. 예문을 제시하여 함께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소개를 한다. 예를 들어 “offset”과 같은 동사가 “loss”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것을 알려 준다. 복합어 위주로 소개를 한다면 후자는 연어(collocation)처럼 동사+목적어의 패턴을 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개의 유형 모두 피험자들이 영어 학습을 하는데 충분한 관심을 끌만했고, 피험자들의 반응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언어 중심 4가지 유형에 대한 피험자들의 분석

피험자	유형	배운 것	이유
A	1	생존에 도움이 되는 용어들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됨
	2	바비큐	-설명이 사전보다 낫다.
	3	생소하고 독특한 관용어구	-은유적인 표현이라 재미있다.
	4	하나의 단어로 만들 수 있는 표현들 (예, downside)	-다양한 예문 소개. 사용 욕심 생김
B	1	실제와 맞는 전문 용어들	-직접 경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하나의 맥락에서 동사, 명사 배웠음	-스토리 중심이라 기억이 잘 됨
	3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예, a silver tongue)	-다른 교재에서 보기 힘든 표현들
	4	감정적인 부분들 극대화하는 어휘 (예, offset, vent, downside)	-예시들이 많아서 표현을 익숙하게 만들어 줌
C	1	병명 등 의학적 정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증상 설명에 필요
	2	문법	-경험을 소재로 문법 설명
	3	a silver tongue, a stroke of genius, jack-of-all-trades	-단어의 생긴 모양만 보아도 재미있다.
	4	offset, downside, vent	-새로운 지식이다.
D	1	다양한 고통들	-자주 겪는 고통들이라 영어로 알고 싶음
	2	바비큐. 여행 경험들	-남에게 설명하는데 필요함
	3	“emotional outlet” 외 14개의 표현들	-처음 보는 단어 조합이라서
	4	“move forward with the idea” 외 12개의 표현들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좋은 표현
E	1	약국에서의 전문 용어	-약국에 갔을 때 필요함
	2	문법 구문	-표현력이 강화
	3	Murphy’s Law, a jack-of-all trades, a stroke of genius	-Word chunk 의미 설명과 예문 제시
	4	offset, downside, vent	-어휘의 의미가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어서

피험자 A는 첫 번째 유형, 즉 약사와 환자와의 대화에서 환자가 증상을 말하자 약사가 정확한 증상의 이름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my stomach hurts”의 증상 이름을 “stomach ache”라고 하는 증상에 관련된 전문 용어들을 배웠고 이는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이유를 말하였다. 피험자 B는 증상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알아 두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피험자들도 한결같이 알아 두면 필요할 지식이라고 했고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험이 토대가 되면 학습 이상의 효과, 즉 언어 학습 이상의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 이때의 지식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한 여인이 바비큐를 직접 하면서 바비큐가 명사, 형용사, 그리고 동사로 사용되는 활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피험자 A는 여인이 바비큐 시범을 직접 보여줘서 사전보다 의미를 파악하는데 좋다고 했고, 피험자 B는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기억을 돕는다고 했다. 피험자 C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바비큐에 대한 언어적 설명이 문법 이해에 효과가 있다고 했으며 피험자 D와 E는 남에게 바비큐의 다양한 품사를 설명할 때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는

피험자 A와 C는 체험을 바탕으로 학습 이상의 지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험자 B, D, 그리고 E는 어휘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 유형은 우리말로 다양한 표현들을 영어로 가르쳐 주는 자료로, 예를 들면 "뛰어난 말 솜씨"를 영어로 "a silver tongue"이라고 소개한다. 영어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이에 대해 피험자 A는 생소하고 독특한 관용어구라고 하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눈길을 끈다고 했다. 흥미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피험자 B는 표현들이 비유적이라서 선택을 했고 다른 교재에서는 보기 힘든 표현이라고 말했다. 피험자 B는 어휘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험자 C는 단어의 생긴 모양만 보아도 흥미롭다고 했다. C는 "재미"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피험자 D는 세 번째 유형에서 사용된 표현 15개를 모두 적고 처음 보는 단어 조합이라고 했다. 그녀의 머리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끈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피험자 D의 관심은 언어에 국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험자 E는 "word chunk"라고 언급을 하였을 뿐 더 이상의 언급하지 않다. 두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피험자 A와 C는 학습을 떠나서 "흥미" 또는 "호기심"이라는 관점에서 표현들을 바라보고 있고 피험자 B, D, 그리고 E는 학습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네 번째 유형은 "offset, vent, downside"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험자 A는 단어는 한 개인데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이 눈길을 끈다고 하며 사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고 했다. B는 네 번째 유형의 단어들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극대화되어 있어 흥미롭다고 하였고 다양한 예시가 단어들을 익숙하게 해 주었다고 하였다. 피험자 C는 단어들이 새로운 지식을 주었다고 했고 피험자 D는 3개의 단어들을 15개의 예문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예문들이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익할 것 같다고 했다. 피험자 E는 문맥에 따라 각각의 단어가 다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관심 있다고 했다.

네 번째 유형에서는 피험자들 모두 어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피험자 A, B, 그리고 C는 어휘 학습과는 다른 관점에서 3개의 단어들을 바라보았다. A는 표현하고 싶은 욕구, B는 감정적인 표현의 극대화, 그리고 C는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험자 D와 E는 어휘에 초점을 두고 표현력에 관심을 보였다.

요약하면 피험자 A와 C는 L1 어린이처럼 탐험과 가까운 접근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단순한 어휘 학습이 아니고 어휘와 세상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언어 중심 유형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험자 D와 E는 어휘 학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 피험자 B는 중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피험자들에게 L1 어린이의 언어 학습에 관한 설명을 해 준 것이 A와 C에게는 학습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피험자 D와 E는 그들의 평소 학습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한 것이다.

2. 내용 중심 교재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

내용 중심 유형에서는 피험자들 스스로 눈에 들어오는 어휘들이나 표현들을 찾아야 한다. 언어 중심 유형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어휘들을 제시해 주었지만 내용 중심에서는 피험자들이 내용을 토대로 관심있는 어휘들을 찾아내야 했다.

1) 메시지(조언)

누군가에게 들은 조언이 마음에 와닿으면 그 조언들을 기억하게 되어 있다. 다만 영어 학습용으로 제시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피험자 A는 “contagion”이 “전염”의 의미를 넘어서 “타인의 기분이나 태도를 흡수하는 경향”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알고 있던 “contagion”의 의미를 넘어서서 문맥에 맞는 의미를 잘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내용이 진지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유튜브에서 제공한 내용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피험자 A는 이번 동영상의 조언을 마음에 담기 보다는 학습용으로 간주한 것임에 틀림없다.

피험자 B는 어려운 용어들을 접하면서 그 용어에 포함된 지식 정보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비록 짧게 언급하였지만 언어 보다는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어떤 용어들에서 지식 정보를 배우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과연 언어가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확실치 않다.

피험자 C는 단어 하나에서 내용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manipulate”를 우리말로 “조작하다”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세뇌시키는 “gaslighting”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배우는 바가 컸다고 한다. 단순히 어휘 하나를 배운 것이 아니고 지식이 축적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피험자들 중에서 언어의 중재성을 잘 언급한 학생이다. C가 언급한 “manipulate”는 핵심이 되는 어휘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manipulate”가 무엇을 중재하는지 확실하게 표현하였다.

피험자 D는 일관되게 내용 전체에 나오는 표현들 21개를 적고 평소에 사용하기 힘든 어휘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오직 언어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다. 피험자 E는 논리성을 배울 수 있었다고 했는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요약하여 보면 피험자 B와 C는 언어 학습보다 지식 정보를 강조하였다. 나머지 피험자들은 언어에 더 집중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에게 내용이란 언어를 배우기 위한 자료에 불과했다는 판단할 수 있다.

표 2
메시지(조언) 담화에 대한 피험자들의 분석

피험자	배운 것	이유
A	인지적/정서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예1) emotional contagion 예2) stress is contagious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의 깊이가 훨씬 풍부해진다.
B	심리학적, 사회적, 과학적 분야와 관련된 용어를 배움.	관련된 분야의 지식 정보가 좋았음.
C	“manipulate”에서 “gaslighting” 배움 “knowing-doing trap”, “emotional contagious”	단어 하나로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는 “key word”여서 좋았음.
D	“unfazed appearance” 외 20개 표현	평소에 넘지 못한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장치들을 배울 수 있었다.
E	control your emotions, maintain a serene demeanor and voice, turn off engagement	언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2) 유머

유머 또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이다. 그러나 문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언어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 Al-Najadat, 2015; Mahdiloo & Izadpanah, 2017; Octaberlina & Asrifan, 2021). 그러나 L1 어린이라면 유머를 보고 웃으면서 자신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우스웠던 장면들을 말을 했을 것이다. 이때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완전히 중재의 기능만 가지게 된다. 표 3은 피험자들이 유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표 3
유머 담화에 대한 피험자들의 분석

피험자	배운 것	이유
A	This is the last and best day of my life.	“Last”와 “best”가 대조를 이루면서 웃음을 자아내고 있음
B	make a shot, take a shot	후자는 알고 있었지만 전자는 처음 보는 것이고 “take a shot”을 굳이 “총 쏘다”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
C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들 예) take a shot, army	유머적인 코드를 이해하고 있으면 중의성을 바르게 골라서 내용을 즐길 수 있음
D	their army is basically unstoppable now, Who’s gonna be stupid enough to make a shot?	“unstoppable”이 “army”가 BTS의 팬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 흥미롭고 “stupid enough”를 통해서 BTS 팬들의 힘들을 느끼게 해 주는 것도 즐겁다.
E	army, unstoppable	이중적인 의미를 통해서 언어 유희의 중요성 인식

BTS를 주제로 토크 쇼에서 연사가 재미있는 농담을 하였다. 피험자 A는 “this is the last and best day of my life”라는 문장을 고르면서 이 부분이 제일 우스웠

다고 했다. 피험자 A가 유머와 관계를 맺는데 위의 표현이 중재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피험자 B는 “make a shot”가 “take a shot”의 차이를 배웠다고 했다. 그녀는 유머를 즐기기 보다 언어 학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피험자 C는 “take a shot”과 “army”가 지닌 중의성 때문에 유머가 재미있었다고 했다. 두 개의 표현을 중재로 하여 유머를 즐긴 것으로, 피험자 C는 유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료된다.

피험자 D는 “unstoppable”에서 BTS 팬들의 극성스러운 모습이 암시되어 있어서 재미있다고 하고 또한 “stupid enough”에서도 팬들의 위력을 알고 있다면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언어에만 집중하던 피험자 D가 이번에는 내용에도 관심을 보인 것이 인상적이다.

피험자 E는 “army”와 “unstoppable”의 이중적 의미가 언어 유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관심이 있다고 했다. 유머와의 관계에서 “army”와 “unstoppable”이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여 언어 유희를 즐길 수가 있다고 했다.

요약하면 피험자 B를 제외한 다른 피험자들은 유머를 언어 중재로 사용하면서 내용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만약 유머를 교실에서 이용한다면 언어 학습이 목적이 되어 있는 L2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학습법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감동

감동을 느끼게 하기 위해 영화 *오토라는 남자*를 이용하였다. 피험자들은 이 영화에 감동받았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배웠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 표 4의 담화들은 피험자들이 선택한 장면들 중에서 하나씩을 임의로 고른 것으로 대부분 비슷한 장면에서 감동을 받고 있었다.

표 4
감동 담화에 대한 피험자들의 분석

피험자	배운 것(담화)	이유
A	Otto: “I’ve been an idiot. I got so wrapped up in my own troubles. I wasn’t thinking about anyone else.”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더 멀어진 기분이다. 이런 삭막한 시대에 소중한 메시지로 여겨진다.
B	Marisol: No. You won’t tell me why your phone is disconnected? You won’t tell me why you need to use my phone? You won’t tell me what happened to you in the street yesterday? And then you went inside and you wouldn’t even open the door? You scared me, Otto	Marisol과 Otto의 대화가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이 풍부해진다. 서로 솔직하기를 기대하는 Marisol에게 Otto의 행동은 큰 실망을 가져다 준다. 이 사건 이후로 Otto가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C	Otto: Now you listen to me. You have given birth to two children. Soon it'll be three. You have come here from a country very far away. You learned a new language, you got yourself an education and a nitwit husband and you are holding that family together. You will have no problem learning how to drive.	Otto의 깊숙한 내면과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의 진솔한, 인간적인 면모가 극적으로 드러나 장면이다. 사연을 가진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람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D	Otto: The house, and everything in it, is yours, so long as you promise never to sell it to those real estate bastards. And for God's sakes, Marisol... Tommy. Don't let Tommy drive the Chevy. Come on. Or anyone else, for that matter. I'm trusting it with you alone. Because you are not an idiot.	영화의 전반적인 주제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표현들 중의 한 부분이다.
E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음	개인적으로 영화를 싫어해서 할 말이 없음

피험자 A는 Otto와 Reuben이 오랜 친구였는데 Reuben이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을 나중에 알게 된 Otto가 반성하는 장면을 선택하였다. 피험자 A는 친구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가 더 생긴 것을 Otto가 반성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피험자 A가 선택한 장면의 언어와 그가 느낀 감동 사이의 연결은 잘 되어있지 않다. 그가 제시한 3개의 문장 중 두 번째 문장인 "I got so wrapped up in my own troubles"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중재로 사용해 피험자 A가 감동받았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

피험자 B는 Marisol이 Otto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는 장면을 골랐다. 이 대화 이후로 Otto는 많이 달라졌다. 그녀도 담화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밝혔지만 피험자 A와 마찬가지로 담화의 어떤 언어가 감동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Marisol은 "You won't tell me ~"로 시작하는 패턴을 3개나 사용하였다. 하나의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중재 역할을 하여 화자의 주장이 호소력을 갖는다는 언급이 필요하였다.

피험자 C는 Otto가 Marisol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면서 용기를 주는 장면을 골랐다. Otto는 7개의 문장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문장은 주목을 시키는 것이고 7번째 문장은 Marisol이 운전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Otto가 하려는 말이다. 중간의 5개의 문장은 Marisol이 능력이 충분하다는 증거들을 나열해 놓은 담화이다. 이런 담화적인 구조를 중재로 언급하면서 감동을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피험자 D는 Otto가 Marisol에게 유서를 남기는 부분을 택했는데 감동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언어 표현에 대한 언급을 하고 끝냈다. 피험자 D는 언어 학습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요약하면 피험자 E를 제외한 다른 피험자들은 영화에서 감동적인 장면들을 잘 선택했다. 그러나 감동받은 부분들을 중재해 줄 언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데 실패를 했다. L1 어린이같이 경험한 사건을 언어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

험자들은 (간접적인) 경험과 언어를 융합시키는데 실패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영화를 활용한 감동 유형에서는 중재의 개념을 활용하는데 미숙했다고 볼 수 있다.

4) 학습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7가지 타입들

언어 중심 유형 4가지 중 첫 번째는 상황 대화(1번)로 약국, 강의실에서 문법 설명, 공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현장 중심(2번)으로 어휘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바비큐, 여행, 일광욕, 철물점 등의 실제 현장에서 관련된 어휘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영어로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재미있는 복합어들(3번)을 예문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원어민이 아니면 사용하기 힘든 표현들(4번)을 예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내용 중심 유형 3가지는 조언(5번), 유머(6번), 그리고 영화 속의 감동(7번)이다.

위의 결과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6번의 유머가 언어를 중재로 가장 잘 사용을 하였고 7번의 영화에서는 내용을(감동) 잘 파악했으나 중재라는 관점에서는 확실한 발전은 볼 수가 없었다. 다음 표 5는 피험자들이 1번부터 7번까지 7개의 유형을 가장 선호하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피험자 A와 피험자 C는 유형별 분석을 하였을 때 본 연구의 성향과 가장 가까운 결과를 보여줬지만 실제 그들의 선호도를 보았을 때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6번의 유머에서는 언어를 중재로 잘 사용하였지만 선호도 조사에서는 6번이 가장 낮았다. 이에 반해 7번 영화의 감동은 언어 중재에서 확실한 발전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했지만, 선호도 조사에서는 피험자 E를 제외하고는 선호도가 중간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선호도에서는 유형별 분석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결국 피험자들은 언어의 중재와 언어 학습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피험자들이 선호하는 학습 순서

피험자	선호하는 학습 순서
A	2번 — 4번 — 3번 — 7번 — 6번 — 1번 — 5번
B	2번 — 1번 — 7번 — 4번 — 3번 — 5번 — 6번
C	2번 — 7번 — 3번 — 4번 — 5번 — 6번 — 1번
D	1번 — 2번 — 7번 — 5번 — 6번 — 4번 — 3번
E	3번 — — — — — 6번 — 7번
	가장 선호한다 ↔ 가장 덜 선호한다

종합하면 피험자 3명은 2번을 가장 선호했다. 현장을 직접 보여 주면서 어휘를 설명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다. 영화의 감동은 내용 중심인 데도 4명의 피험자들이 선호도가 중상이었다. 영화는 언어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학습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흥미롭다. 6번의 유머는 3명의 피험자들

이 학습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를 통해 피험자들의 성향을 유추할 수 있는데 언어는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피험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언어화하는 L1 어린이와 같은 적극적인 학습 자세는 그들의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분석 결과와 피험자들의 선호도 조사가 상반된 것으로 보였지만 피험자들이 충분한 훈련을 받는다면 다른 결과를 보여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스토리가 탄탄한 영화를 이용하였을 때 피험자들의 수업 참여도는 높았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언어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알려 주었을 때 피험자들은 수긍을 하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관심을 언어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훈련을 받는다면 L1 어린이에 버금가는 언어 학습도 가능하다고 본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L1 어린이와 L2 성인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 2개의 요소가 다르면 비교를 하지 못한다(Brown, 2014). 즉 연령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L1 어린이는 항상 언어 습득에 성공하기 때문에 참조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L1 어린이의 학습 태도 중에서 L2 성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L1 어린이의 관찰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L1 어린이의 학습 또는 생활 태도 중에서 관계와 탐험을 중심으로 L2 성인을 관찰을 하였다. 어린이와 보호자와의 관계처럼 학생들과 교수자와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가이다. 어린이는 애착을 가지고 의존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데 학생들은 어린이 같은 전적인 의존 자세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 관계는 교수자가 제공하여야 성립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어린이에게서 볼 수 있는 태도는 탐험이다.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험해 나간다. 모방을 하는 것도 일종의 탐험이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관심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다. 반대로 성인은 모방도 원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기심도 없고 결국 탐험을 즐기지 않는 학습자들이 제법 많다. 어린이와 달리 성인은 목표를 미리 설정해 놓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탐험은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표 5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언어 중심 학습 방식을 택했다. 목표가 언어 학습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택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언어 중심은 학습해야 될 언어를 제공한다. 이런 유형에서는 탐험은 없고 오직 이해를 통해 학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내용 중심에서는 피험자들이 학습해야 할 언어를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내용에 관심을 보여야 관련된

언어를 발견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조언, 유머, 감동의 장르에서 내용에 관심을 보이기를 기대를 하였다. 표 2의 결과처럼 조언에서는 조언의 내용 보다는 조언에서 사용된 언어에 관심을 더 보였다. 표 3에서 유머는 확실하게 내용에 관심을 보였고 중재가 될 언어도 비교적 잘 찾아내었다. 그런데 표 5의 학습 선호도를 보면 의외로 유머는 학습하기 적합한 장르로 보고 있지 않았다. 표 4의 감동에서는 영화에서 감동적인 내용을 잘 고르고 감동받은 이유도 설명을 잘 했다. 그런데 내용 설명은 잘 하면서 중재된 언어를 고르는데 서툴렀다. 예를 들면 표 4에서 피험자 A가 선택한 담화에서 Otto가 친구인 Reuben에게 무심했던 점들을 반성하는 장면이 나온다. 언어는 중재를 하는 도구이므로 어떤 언어로 반성을 했는지 중재된 부분을 언급 했었어야 했다.

그러나 성인들이 어린이와 같은 성향을 가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유머 장르에서 재미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단어들을 잘 선택한 것을 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성인들은 훈련이 필요하고 언어 발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내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 배우는 언어만이 언어 발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Atkinson, 2011). 표 5에서도 보면 3명의 피험자들은 언어 중심의 2번 유형을 가장 선호했다. 2번 유형은 현장을 보여주고 거기에 맞는 어휘를 소개하는 장면이다. 현장을 보면서 피험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떠올린다. 이것을 보면 성인들도 경험을 토대로 언어를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린이의 경험과 성인의 경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는 것을 언어화하는 반면에 성인은 과거의 경험을 언어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점이 지금인 경우에 언어 입력이 오면 당장 효과가 있지만 시점이 과거가 되면 언제 과거의 시점이 다시 재현될 지 장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학습을 한 언어를 사용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 결국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 실제 의사소통 상화에서 출력으로 확대가 되야 언어 습득이 되는 것이다(Ryu, 2017). 따라서 성인들에게 지금의 경험을 토대로 중재가 되는 언어를 연결하도록 훈련을 시킨다면 그들의 언어 능력도 변화가 올 것이다.

2. 결론

많은 L2 학습자들은 그들의 대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대화 능력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있는 한 자연스런 언어 학습과 발달은 기대하기 힘들다. L1 어린이의 애착과 탐험 욕구는 그들을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만든다. L2 성인들이 대화 능력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는 없고 오직 언어만 배우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언어는 철저하게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 언어학자가 아닌 이상 언어에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언어를 부자연스럽게 배우게 만든다. 알고 싶은 욕구 안에서 언어 학습이 이뤄져야 배운 언어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Krashen(1982)의 습득-학습 가설의 습득 개념도 자연스런 언어 학습, 중재 기능

을 가진 언어를 배우는 것이 무서운 힘을 지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Vygotsky(1978)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은 언어와 같은 부호 체계(sign system)를 이용해서 중재를 선다고 하였다. 여기서 중심은 인간과 환경이다. 언어는 부호 또는 도구에 불과하다. 만약 도구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이 도구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중재를 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를 암시적으로 다루고 명시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영화 *오토라는 남자*에서 Otto가 Reuben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 잘못을 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언어로 잘못을 시인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언어가 고백을 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밟을 때도 어떤 언어를 알아야 입국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언어가 도움을 줄 것이다. 나와 세상과 언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언어 학습의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무작정 언어 지식에 몰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화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영화를 학습에 이용하는 문제이다. 알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고 언어 학습과의 연결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피험자들은 영화를 보고 중재하는 언어를 찾아내는 것은 못했지만 선호도에서는 영화를 활용하는 것이 높았다. 국내에서 영화를 활용한 연구들을 보면 내용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적지 않다(Park, 2020; Rho, 2020, 2022; Ryu, 2022). 영화를 보며 내용에 관심을 두고 중재하는 언어를 찾는 훈련을 충분히 받는다면 L2 성인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과 대화 능력에 큰 발전이 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더 많은 L2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Ainsworth, M. D. S. (196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interaction among the Ganda. In B. M. Foss (Ed.).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 (pp. 67-104). Wiley.

Ainsworth, S. M. D. S. (1967). *Infancy in Uganda: infant care and the growth of attachment*. The Johns Hopkins Press.

Al-Najadat, J. S. (2015). Usefulness of humorous English texts as language input: Views of English majors at Mu'tah university. *Jordan Journal of Modern Languages and Literature, 7*(2), 99-122.

Atkinson, D. (2011). A sociocognitive approach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How mind, body, and world work together in learning additional languages. In D. Atkinson (Ed.), *Altern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143-166). Routledge.

Baillargeon, R., Spelke, E. S., & Wasserman, S. (1985). Object permanence in five-month-old infants. *Cognition, 20*(3), 191-208. https://doi.org/10.1016/0010-0277(85)90008-3

Bayat, N., Ashtari, A., & Vahedi, M. (2021). The early prelinguistic skills in Iranian infants and toddlers. *Iranian Rehabilitation Journal, 19*(4), 441-454. https://doi.org/10.32598/irj.19.4.1605.1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 Basic Books.

Brown, D. (2014).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and pedagogy*. Pearson.

Burkhart, M. L., & Borelli, J. L. (2020). Attachment theory. In V. Zeigler-Hill & T. K. Shackelford (Eds.) *Encyclopedia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pp. 292-306).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3-319-24612-3_2014

Daniels, H. (2015). Mediation: An expansion of the socio-cultural gaze.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28*(2), 34-50. https://doi.org/10.1177/0952695114559994

Forster, M. (Director). (2022). *A man called Otto* [Film]. Columbia Pictures; Stage 6 Films; SF Studios; Artistic Films; Playtone; 2DUX²; STXfilms; Big Indie.

Fraley, R. C. (2018). *Adult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A brief overview*. http://labs.psychology.illinois.edu/~rcfraley/attachment.htm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https://doi.org/10.1037/0022-3514.52.3.511

Karpov, Y. (2003). Vygotsky's concept of mediation. *Journal of Cognitive Education and Psychology [online], 3*, 46-53.

Kobayashi, W. (2022). Ideas of mediation in post-Vygotskian works. *The Journal of Engaged Pedagogy, 21*(1), 177-190. https://doi.org/10.51077/epajournal.21.1_177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ergamon Press.

Lantolf, J. P. (2011). The sociocultural approach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D. Atkinson (Ed.), *Altern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24-47). Routledge.

Lester, S., & Russell, W. (2010). Children's right to play: An examination of the importance of play in the lives of children worldwide. *Working Paper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57*. Bernard van Leer Foundation. The Hague, The Netherlands.

López Ferrero, C., Martín Peris, E., Esteve Ruescas, O., & Atienza Cerezo, E. (2019). *Mediation. In Discursive competence in its constellations: Gossary*. https://www.upf.edu/en/web/ecodal/glosario-mediacion

Mahdiloo, A., & Izadpanah, S. (2017). The impact of humorous movie clips on better learning of English language vocabulary.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English Education, 2*(2), 16-29.

Määttä, S., Laakso, M.-L., Tolvanen, T. A. A., Westerholm, J., & Aro, T. (2016). Continuity from prelinguistic communication to later language ability: A follow-up study from infancy to early school ag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9*(6), 1357-1372. https://doi.org/10.1044/2016_JSLHR-L-15-0209

Mental representation. (2023, August 29). I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Mental_representation

Nieto, C. H. G. (2007). Applications of Vygotskyan concept of mediation in SLA. *Colombian Applied Linguistics Journal, 9*, 213-228.

Norton, B., & McKinney, C. (2011). An identity approach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D. Atkinson (Ed.), *Altern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73-94). Routledge.

O'Connor, D., & Butler, A. (2018). *An exploration into factors which influence positive object play experience for children who are living with severe physic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Community-Academic Research Links, University College Cork. https://hdl.handle.net/10468/12128

Octaberlina, L. R., & Asrifan, A. (2021). The use of humor story in improving the students' reading comprehension. *OSF Preprints.* https://doi.org/10.31219/osf.io/kvsbe

Park, Y.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salience and culture in movie English. *STEM Journal, 21*(4), 19-38. https://doi.org/10.16875/stem.2020.21.4.19

Quinn, S., Donnelly, S., & Kidd, E.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symbolic play and language acquisition: A meta-analytic review. *Developmental Review, 49*, 121-135. https://doi.org/10.1016/j.dr.2018.05.005

Rho, Y. (2020). An analysis of the film Mona Lisa smile through the concept of 'perspective': Focusing on conflict. *STEM Journal, 21*(4), 39-58. https://doi.org/10.16875/stem.2020.21.4.39

Rho, Y. (2022). A study on ways to raise pragmatic awareness in Movie English: Based on L1 transla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8*(2), 53-73.

Rogers, C. (1951). *Client-centered therapy.* Houghton Mifflin.

Rogers, C. (1977). *Carl Rogers on personal power*. Delacorte.

Rogers, C. (1983). *Freedom to learn for the eighties*. Charles E. Merrill.

Ryu, D. (2017). A study on productive learning of vocabulary to improve competence in English: With reference to word combination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3*(2), 37-55.

Ryu, D. (2022). A study on roles of proper names in movie English. *Journal of English Teaching through Movies and Media, 23*(1), 13-26. https://doi.org/10.16875/stem.2022.23.1.13

Schütz, R. E. (2019, October). Stephen Krashen's theor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English Made in Brazil.* https://www.sk.com.br/sk-krash-english.html

Shumway, S., & Wetherby, A. M. (2009). Communicative act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in the second year of lif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2*(5), 1139-1156. https://doi.org/10.1044/1092-4388(2009/07-0280)

Tomasello, M. (2000). First steps toward a usage-based theory of language acquisition. *Cognitive Linguistics, 11*(1-2), 61-82. https://doi.org/10.1515/cogl.2001.012

Tomasello, M., Kruger, A., & Ratner, H. (1993). Cultural learning.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6*(3), 495-511. https://doi.org/10.1017/S0140525X0003123X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Wertsch, J. V. (2007). Mediation. In H. Daniels, M. Cole, & J. V. Wertsch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Vygotsky* (pp. 178-1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COL0521831040.008

Zhabinskaya, E. (n.d.). The newborn cries non-stop. Why does a newborn baby cry. *gdtp.* https://gdtp.ru/en/lifestyle-pregnant/novorozhdennyi-plachet-ne-perestavaya-pochemu-plachet-novorozhdennyi.html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임미진(교수)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Email: immijin@kookmin.ac.kr

Received: November 9, 2023
Reviewed: December 6, 2023
Revised version received: December 21, 2023